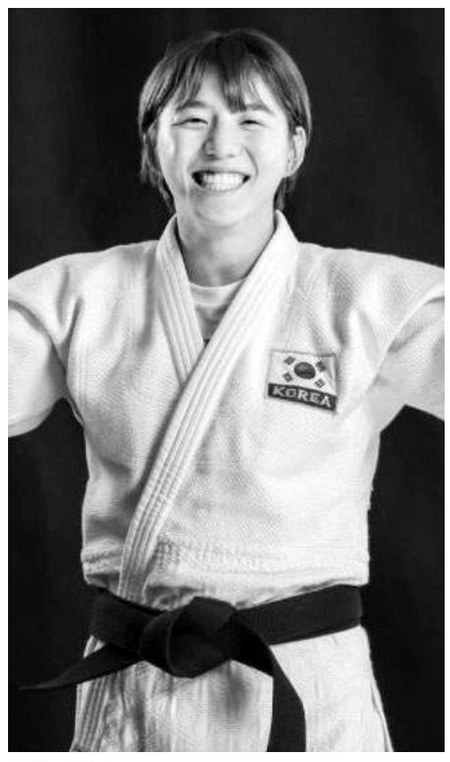
순천시청 운동부 잇단 선전 '눈에 띄네'

유도 박다솔·김지정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우승…김혜미 3위
양궁 이은경 전국종합선수권대회 우승…단체전에선 준우승

순천시청 양궁팀. 임동일(왼쪽부터) 감독, 이은경, 최미선, 박서진. 〈전남도체육회 제공〉

순천시청 유도 김지정(왼쪽)과 김혜미.



유도 박다솔

순천시청 유도팀이 내년 아시안 게임 출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순천시청 유도팀 박다솔과 김지정이 최근 충남 대전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여자일반부에서 각각 -52kg급, -63kg급 우승을 차지했다. -70kg급 김혜미는 3위에 올랐다. 이들이 이번 1차 선발전에서 선전함에 따라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이 커졌다.

박다솔은 -52kg급 준결승에서 정예린(인천시청)을 한판 굳히기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황수련(용인대)을 지도 3개로 꺾고 정상을 밟았다.

김지정도 -63kg급 준결승에서 이주연(광주도시철도공사)을 누르고 결승 진출, 조목희(한국마사회)에게 지도 3개를 얻어내 승부를 결정지었다.

-70kg급 김혜미는 한희주(KH유도단)와 준결승에서 절반 발기술 두 개를 내주며 아쉽게 3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양호 순천시청 감독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1차 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선수들과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 많은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순천시청 양궁도 전국대회에서 개인전 우승,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순천시청 간판 이은경은 올시즌 대회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이은경은 최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남여양궁종합선수권대회 여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한솔(홍성여고)을 6-2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결승에서 전인아(전북도청)에게 6-5 신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이은경은 결승에서 여유롭게 승리를 따냈다.

이은경은 단체전 준우승에도 기여했다.

이은경·최미선·박서진이 출전한 순천시청은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홍성군청에 2-6으로 석패, 준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 임동일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 여건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진영 vs 코다…여왕은 누구
CME챔피언십서 마지막 승부

2021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여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이어 온 고진영(26)과 넬리 코다(미국)가 '마지막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는 1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 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리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 달러)으로 막을 내린다.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CME 글로브 레이스 순위 상위 60명만 참가하는 대회로,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등 개인 타이틀의 주인공이 모두 결정된다.

코다는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191점, 상금은 223만7157달러로 모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은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0점 차인 181점으로 2위, 상금에선 200만2161달러로 2위에 자리했다.

다승에선 고진영이 4승으로 앞서고 있었으나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으로 코다가 균형을 맞췄다.

세계랭킹에서도 코다가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을 통해 1위를 지키고 고진영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랭킹 포인트 차이는 0.95점으로 지난주보다 벌어졌다. CME 글로브 레이스에선 고진영이 1위(3520.150점), 코다(3420.6점)가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

투어 챔피언십은 총상금으론 메이저대회인 AIG 여자오픈(580만 달러), US여자오픈(550만 달러)에 이어 이번 시즌 LPGA 투어 대회 중 세 번째이지만, 우승 상금은 150만 달러로 가장 많아 고진영과 코다 외에 많은 선수에게 상금왕 등극 기회가 열려 있다.

코다와 고진영의 경쟁으로 압축된 올해의 선수의 경우 우승자에게 포인트 30점, 준우승자에겐 12점을 줘 이번 대회 성적으로 엇갈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두 선수 중 우승자가 나올 경우 시즌 다승 단독 1위(5승)도 가져가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서 대학양궁 최강 가린다 한국대학양궁선수권 17~19일 개최

지난해 열린 '광주여대 총장기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 〈광주여대 제공〉

국내 대학양궁 최강을 가리는 '광주여대 총장기 제24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 대회'가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다.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는 올해까지 24회를 거치면서 우수한 선수를 꾸준히 배출, 한국양궁 발전에 기여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19개 대학교 2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리커브와 컴파운드 부문에서 남녀 개인, 단체전과 시·도별 남녀선수 1명씩이 출전하는 혼성전 등 모두 10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2011년 14회 대회부터 11회째 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여대는 한국 여자양궁의 간판 기보배, 최미선, 안산을 배출한 양궁 명문학교로,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대학스포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선재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광주여대 총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여건 속에서 어렵게 열린 대회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닫혀있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목표한 성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이번 대회는 추운 날씨로 인한 선수보호차원에서 매년 열렸던 잔디구장이 아닌 유니버시아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볼링,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금

광양시청 가수형 맹활약

한국 볼링이 2021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추가하며 미국과 함께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강희원(울주군청), 가수형(광양시청), 고재혁(경북도청), 지근(부산광역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남자 볼링 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엑스포 특설 레인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4인조)에서 정상에 올랐다.

8강에서 리투아니아,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를 연이어 꺾은 한국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선 싱가포르에 2-0으로 완승했다.

앞서 이번 대회에서 여자 3인조 금메달, 남자 3인조 은메달, 남자 개인전 동메달(지근)을 따냈던 한국 볼링은 마지막 날 금메달 하나를 더하며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미국과 함께 종합 우승하며 대회를 마쳤다.

만 19세인 대표팀의 막내 지근은 개인전에서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입상하고 단체전과 3인조에선 각각 금메달, 은메달 획득에 힘을 보태 성인 국가대표 발탁 뒤 처음 나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골고루 챙겼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 볼링 대표팀이 1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엑스포 특설 레인에서 열린 2021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4인조)에서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한 지근(왼쪽부터), 고재혁, 강희원, 가수형.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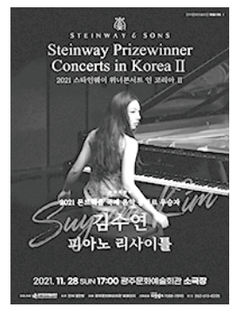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터널스
2관	이터널스
3관	강릉
4관	장르만 로맨스
5관	디어 에반 핸슨, 이터널스,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6관	장르만 로맨스
9관	디어 에반 핸슨, 귀멸의 칼날: 남매의 연
7관 씨네커플	강릉,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아담스 패밀리 2, 고장난 론
8관 씨네커플	듄, 아담스 패밀리 2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